

한국로타리 90년 역사의 시초, 서울로타리클럽의 회원증강 젊은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서울영리더스 위성클럽’

글. 서울로타리클럽 회장 한태숙

2017-18년도 한국로타리 제2차 로타리 회원증강 연수회가 2월 8일 기계 공업도시의 요람인 경남 창원시의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서울 영리더스 위성클럽 창립의 성공사례 발표자로서 참가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가니 3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역을 빠져 나와 도심으로 지나가는 도로도 너무나 깨끗해진 도시로 변화되어서 깜짝 놀랐다. 창원은 10여년 전에 한번 와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큰 변화가 있어서 살기 편한 곳 같아보였다. 창원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거의 회사 일로 가는 분위기로 역동적인 느낌이 들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한국이 2개의 zone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은 회원 증강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다. 한국로타리 19개지구는 현재 약 6만 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20% 성장인 72,000명의 회원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연수회를 갖게 된 것이었다. 회원 증강 방안이 여러 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회원을 유지시키고, 여성회원과 40세 미만의 회원을 늘리고, 신생클럽과 위성클럽을 더 많이 창립하고, 로타랙트를 로타리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들이 소개되었다.

서울로타리클럽은 한국 최초의 로타리클럽이며,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창립된 클럽이다. 한국에 있는 1,627개 로타리 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주회의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클럽이라 외국 로타리안들이 즐겨 찾는 클럽이기도 하다. 1927



RC 김원표 3630지구 전총재와 함께 한태숙 서울RC 회장

년에 세워진 이후 한국의 내노라하는 리더들이 클럽의 회장이나 지구의 총재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한국의 로타리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 로타리 회원 중에서 40세 미만은 3.5%이며 60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울로타리클럽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클럽 회원들의 나이도 들어가고, 젊은 회원들의 입회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또래가 없어서인지 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원 수도 줄어들게 되었다.

서울RC는 2015년에 로타리 회원 자체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알거나,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젊은 사람들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중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모아 '서울영리더스클럽' (일명 SYLC)을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에 로타리 회원 자체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알거나,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젊은 사람들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중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모아 '서울영리더스클럽' (일명 SYLC)을 결성하였다.

주로 직장인이거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한 명의 회장이 운영을 하였는데, 외국으로 나갈 기회도 많고, 자신의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장을 2명 뽑아 운영하고 있다.

정기 모임은 주말에 실시하며, 한 달에 한번 씩 미혼모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 때부터 연회비에 US \$100를 넣어 2015년부터 100% EREY 클럽이 되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보니 그들의 회의진행 형태도 매우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이며, 국내외 회비관리는 서울로타리클럽의 재무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SYLC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미혼모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목표로 지난 12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기도 하였고, 야구게임, 동물원 방문 등을 기획하고 있다.

SYLC의 특성은 서울로타리클럽의 주요 행사에 자주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서울로타리클럽이 후원하는 이화여대 로타랙트 클럽과 한국외국어대학 로타랙트클럽까지 같이 어울려서 대가족 같은 분위기로 활동하며, 차세대를 이끌어갈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